

수월루상량문(水月樓上樑文)

1849_이원조(李源祚) 지음_55.0×136.0cm



수월루 건립 당시 이원조(李源祚, 1792-1872)가 지은 상량문으로 건립에 대한 감회와 경과를 기록하였다. 또 서원 밖의 넓은 백사장과 밝고 상쾌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水月樓上樑文

集靑衿而講衣鉢之傳寒水照月控翠渚而仰門牆之卓畫棟連雲混混一鑑源頭 念斯文始闢於環嶠煌煌三字櫺額綺遺園尙傳於戴尼河東道交想聯卓於伊院漢西高弟簪登門於熙川理餘韻於玉溪古亭琴瑟尋舊刻於劔澤內院碑刊蓋先生直捷於淵源俾後學不迷於門路光風霽月之都在立得小學根基秋毫泰山之可供期至大聖闡域主敬直達於天德青邱倡性理之論率禮偶符於地名玄都值文明之運所以百世之公議莫不一辭於儒宗尸祝初卜於雙溪瀟然八載之焚燬儀公學於兩廡幾乎五賢之班謂密通於墳庵中年倡移安之舉起瞻感於浪漫聖朝渙頒額之音矧惟嫡脉之相傳迺有寒翁之繼起雲徽美於我之自出啓正路於抽關究志業於人皆可爲奉洪規於入室肆後人景慕席間東櫺揭虔粵諸賢落拓相望別祠旁列獨恨門制之不備只緣院力之未遑緣垣塼於中正堂前既有藏修遊息之所歷階級於喚主門外尙欠高明爽朗之觀暇日登臨庶幾循序而造極遺風緜邈詎緩塗離而飾墻遂合一鄉之衿紳載營三問之架棟層欄邃閣占面勢於端方曠野平沙敞眼界於縹緲萬疊雲嶂穹碑如見於羹塼一曲清江眞源直通於伊洛非欲侈大於舊制自此增重於吾林駕風霆於空樓庶豁堯夫之宵次裝烟月於小艇擬續夷夷之權歌課後進於詩禮絃歌 雨珠迸地幕前修於揖讓升降 星斗在天得其門而入焉次第敬堂義牖登斯樓而望也羅列智水仁山聊凭百尺之脩梁敢陳六傳之短唱

拋梁東

活水源流左右逢

璫琴試奏絃頭月

理契鳶魚在鏡中

拋梁西

蒼翠群巒入檻低

十疊雲屏開活畫

幅巾端坐簡編稽

拋梁南

第一江山眼界參

麗澤當年傾蓋處

至今遺躅野人諳

拋梁北

洛阜齋裏思先則

蓬纓抵案坐深更

活發天機隨處得

拋梁上

谷霧林霏不敢障

勿四省三真訣傳

肯教冥適終迷向

拋梁下

照寒亭畔月明夜

須將方寸證靈通

寶鑑玄珠光氣射

伏願上梁之後益鞏基礎永藏芬芳流峙有控護之靈既濟功役風雨無動撓之遷大壯規模吾道由是而益

明帖瞻原而高巖儒苑然而丕振望周行而齊趨

憲廟己酉三月 日 後學星山李源祚謹撰

수월루상량문[水月樓上樑文]

선비[靑衿]들을 모아 의발(衣鉢)의 전통을 강론하니, 차가운 물에 달빛이 비추고, 질푸른 물가에 끌어당겨 문장(門牆)의 우뚝함을 우러르니, 채색 기둥이 구름에 닿았네. 혼 혼히 흐르는 한 연못의 근원에서 사문(斯文)이 온 영남에 비로소 드러난 것 생각하고, 빛나는 세 글자의 편액에서, 아, 대니(戴尼)에 유족이 아직도 전해지네. 하수의 동쪽에 도의의 교제가 이원(伊院)에서 나란히 우뚝하기를 생각하고, 한강의 서쪽에 고제(高弟)들이 희천(熙川)에서 일찍 문하에 들었네. 옥계(玉溪)에서 여운을 다스리니 오랜 정자의 거문고가 축축하고, 검택(劍澤)에서 옛날에 새겨 놓은 것 찾으니 내원의 비석 닿았네. 선생께서 연원에 바로 접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문로(門路)에 미혹되지 않게 하였네. 광풍제월(光風霽月)은 모두 『소학』의 근본을 세운데 있고, 추호태산(秋毫泰山)은 대성(大聖)의 영역에 이르기를 함께 기약하였네. 경(敬)을 위주로 하여 천덕(天德)에 곧장 도달하여 우리나라에 성리(性理)의 의론을 창도하였고, 예를 따른다는 수례(率禮)가 우연히 지명과 부합하여 현도(玄都)가 문명의 운수를 만났네. 끼담에 백세의 공적인 의론이 한결같은 말로 유종(儒宗)이라 하지 않음이 없네. 제사를 모시는 것 쌍계(雙溪)에서 처음 정하였으나 허무하게 8년 만에 불타버렸고, 봉안하는 의식 능히 양무(兩廡)에서 거행하니 우뚝하게 오현(五賢)과 나란하였네. 봉암(墳庵)에서 은밀하게 통고하여 중년에 옮겨 봉안하는 일을 창의하였고, 운호(潤渚)에서 감회를 일으켜 성스러운 조정에서 사액하라는 윤음을 내렸네. 하물며 적통의 맥이 이어져, 이에 한옹(寒翁)이 이어 일어남에랴. 나의 선조에서 아름다움 이어받아 빗장을 풀듯이 바른 길을 열었고,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데서 지업을 궁구하여 집에 들어가 큰 법도를 빌들었네. 이에 후인들 경모하여 모두 동쪽 기둥에 경건함을 표시하였고, 아, 제현들 기개가 커 서로 바라보며 별사에 나열되었네. 유독 집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니, 다만 서원의 능력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네. 중정당(中正堂) 앞에 담장을 둘렀으니 이미 실로 또한 학문을 닦고 노닐어 쉴 곳 있고, 환주문(喚主門) 밖에 계단을 지나오니 오히려 고명하고 시원한 경관이 부족하네. 한가한 날 올라 임하면 거의 차례를 따라 지극한 경지에 나아갈 것이고, 유풍이 아득하니 어찌 단청하여 담장 꾸미는 일 늦출 수 있으랴. 드디어 한 고을의 선비들 모아, 세 칸의 집 경영하기 시작하였네. 층층의 난간 깊은 누각은 단정한 방향에 앞모습 차치하였고, 넓은 들 평평한 모래사장은 아득한 시야가 시원하네. 만 겹의 구름 봉우리에 높은 비석은 경장(簾牆)을 보는 듯하고, 한 출기 맑은 강엔 참 근원이 이락(伊洛)과 바로 통하였네. 옛날 규모보다 사치스럽고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우리 유림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일세. 허공의 누대에 풍정(風霆)을 타니

요부(堯夫)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작은 배에 자옥한 달빛 장식하니 무이(武夷)의 도가(道家)를 잇는 듯하네. 시례(詩禮)의 현가(絃歌)를 후배들에게 부과하니 주옥이 땅에 우뚝하고, 음양하며 오르내리는 데에서 전현을 사모하니 북극성이 하늘에 있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경의 집과 의의 창문에 차례지었고, 이 누대에 올라 바라봄에 지자의 물과 인자의 산이 나열 되었네. 예오라지 백척의 긴 들보에 기대어, 감히 육위(六偉)의 짧은 노래 진술하네.

들보 동쪽에 던지세 / 拋梁東

활수가 원두에서 흘러 좌우에서 흘러 근원을 만나네 / 活水源流左右逢

옥 거문고로 뱃머리의 달을 연주하니 / 瑤琴試奏絃頭月

이치가 연어와 합하여 연못 가운데 있네 / 理契鳶魚在鏡中

들보 서쪽에 던지세 / 拋梁西

푸른 빛 여러 산들이 난가 아래로 들어오네 / 蒼翠群巒入檻低

열 겹 구름 병풍에 살아있는 그림 펼쳐지니 / 十疊雲屏開活畫

복건 쓰고 단정히 앉아 책을 실퍼보네 / 幅巾端坐簡編看

들보 남쪽에 던지세 / 拋梁南

제일의 강산에 시아가 모여드네 / 第一江山眼界參

이택의 당년에 경개하던 곳에 / 麗澤當年賴蓋處

지금도 남은 자취 아인들이 알고 있네 / 至今遺蹟野人諳

들보 북쪽에 던지세 / 拋梁北

낙고재 안에서 선대의 법칙 생각하네 / 洛阜齋裏思先則

연자 갓끈 책상에 닿으니 자리가 더욱 깊은데 / 蓮纓抵案坐深更

활발한 천기를 곳마다 터득하네 / 活潑天機隨處得

들보 윗 쪽에 던지세 / 拋梁上

골짜기의 안개와 수풀의 내리는 비도 막지 못하네 / 谷霧霖霏不敢障

사물과 삼성 참 비결 전해지니 / 勿四省三眞訣傳

기꺼이 명적으로 하여금 끝내 항할 곳 미혹하게 하라 / 肯教冥誼終迷向

들보 아랫 쪽에 던지세 / 拋梁下

조한정 가에 달 밝은 밤일세 / 照寒亭畔月明夜

모름지기 마음으로 신령하게 통하는 것 증명하니 / 須將方寸證靈通

보갑과 현주가 광채를 쏘네 / 寶鑑玄珠光氣射

삼가 상량한 뒤에는 더욱 기초가 공고하여 영원히 항기로움 간직하게 하소서. 강과 산에는 보호하는 신령이 있으니 이미 공력을 이루었고 풍우가 동요시키는 것이 없으니 규모가 장대하네. 우리 도가 이로부터 더욱 밝아져 빈 언덕 밟고 올라 높이 쳐다보고 선비의 기풍이 무성하여 크게 떨쳐져 큰 도를 바라보며 나란히 달려가게 하소서.

현종 기유년(1849) 3월 일 후학 성산(星山) 이원조(李源祚)는 삼가 짓다.

※ 李源祚, 『凝窩集』 卷4, 上樸文, 「道東書院水月樓上樸文」에 수록.

※ 번역 : 『도동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2